

AI·가상융합·미디어테크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대 미래산업 추진...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공간 구축·전주 영화·영상산업 기술 고도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올해 초 발표한 인공 지능(AI)과 가상융합, 미디어테크 등 3대 미래기술 기반 산업생태계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첨단 기술을 연계한 실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과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AI 신뢰성 컨설팅 및 검·인증 지원과 지역기업의 가상융합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미디어테크 분야에서는 AI기반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과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K-로케이션 플랫폼 등을 연계해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진흥원은 기존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운영 경험과 KOLAS 공인시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주 시산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 4층에 사무공간과 AI 테스트 지원 장비를 갖춘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공간 구축을 본격화한다.

해당 시설은 지역기업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안정성, 위협요인, 서비스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시험·검증·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AI 신뢰성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퍼지컬 AI 등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AI 신뢰성 검증·확산 모델을 개발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AI 신뢰성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지원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오는 7월까지 TAI(Trustworthy AI) 프로젝트 지원기업 20개사를 모집·선정하고, 이후 11월까지 AI 신뢰성 향상 지원(검·인증) 10건과 개발전(全) 주기 AI 신뢰성 확보 지원 10건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으로, 검·인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도입시 초기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융합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선정된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

으로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 기반의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그룹을 운영해 기업 수요 중심의 AI·가상융합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가상융합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진흥원은 2028년 준공 예정인 G-Town을 향후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활용 가능한 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합성데이터 생성 등에 필요한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검증부터 선도기업의 산업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미디어테크 분야에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내 'AI 기반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위한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 독립영화의 집에는 색보정실, 전주융합마스터링스튜디오,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에서 영화 후반제작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후반제작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AI기반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은 창작자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넓혀 작품의 완성도와 창작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진흥원은 지역 영화·영상산업을 디지털 미디어테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은 AI 기반 음원 검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K-로케이션 플랫폼은 3DGS·NeRF 기술 기반 테스트 개발(POC)을 완료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가 AI, 가상융합, 미디어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히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주간의 차별화된 강점을 살려 기술 기반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의 내삼문에 대해 전통안료 단청 복원 공사를 완료했다.

전라감영 내삼문 전통 빛깔 되찾다

전주시, 전통안료 단청 복원 공사 완료

전라감영 내삼문에 대한 단청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

전주시는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의 내삼문에 대해 전통안료 단청 복원 공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라감영지 건물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복원돼 조선시대의 위엄을 되찾았으나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였다.

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부재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내삼문 단청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내삼문 단청 공사는 천연 안료와 전통 접착제인 아교를 사

용한 전통단청기법으로 시공돼 문화유산 고유의 역사성과 정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청 문양은 전라감영 전체 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성했으며, 전주지역 관아 건물에서 보이는 단청 요소인 6엽 평연화 머리초와 경기전에서만 보이는 황이리 모양을 넣어 지역적 특징을 반영했다.

시는 복원된 단청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을 회복해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삼문에 이어 나머지 전라감영지 내 건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물별 단청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직주불일치 대응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JJRI 이슈브리프 제27호'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주시의 직주균형 및 직주불일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JJRI 이슈브리프 제27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국제통계와 국가교통DB 및 지역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주시의 주택·세대·고용 및 통근기반 직주비율과 공간적·경제적 직주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주시의 지역 성장 기반 구축과 전주광역생활권의 기능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점은 전주시의 고용기반 직주비율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원주군 등 전주시와 인접한 타시·군과의 강한 상호의존적 통근 연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전주시의 주택기반 직주비율은 1.102, 세대가

반 직주비율은 0.920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평균을 상회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고용기반 직주비율은 0.598로 도내 최하위 수준에 그쳐 산업 생산 기능과 일자리 집적 측면에서 제한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근 유출입을 기반으로 한 통근기반 직주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0.842로 조사돼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직주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주시의 지역 성장 기반 구축과 전주광역생활권의 기능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지난 2016년 18.46%에서 2024년 21.74%로 증가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연도의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기준으로 각각 23.7%와 30.6%의 순유출 비율이 확인돼 전주시의 공간적·경제적 직주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전주시의 고용구조는 상용근로자와 사후·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됐

으며,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큰 반면, 제조업·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행정·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전주시의 산업적 특성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를 활용해 △산·학·연·협력거점의 선제적 조성 △탄소·바이오·헬스·첨단소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AI, 디지털 트윈, IoT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전주시의 직주불일치가 원주군 등 인접 지역과의 강한 상호연계성에 기반한 산업·주거 기능의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인 만큼, 향후 전주광역생활권 내 지역 간 기능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연계 통근지원 체계 구축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 수소기업들과 선진 수소기업 벤치마킹

전주시는 17일 지역 내 수소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역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전주지역 수소기업 10개사와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쓰리피닷컴(대표 허성규)을 방문해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방문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기업인 쓰리피닷컴은 지난 2020년 설립된 기업으로 세계 최초 재활용 고압 수소탱크를 상용화했다. 특히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대학 기술창업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리피 닷컴 연구실 및 제조설비 장비들을 견학하며 퍼이프와 수소탱크 등 기업의 생산제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술과 지역 수소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 수소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배달 이동노동자 든든한 안전 파트너 됐다

이륜차 무상 점검·교통 안전교육·노무·건강 상담 등 종합 지원

전주시가 배달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시는 17일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 및 비비이광장 일대에서 배달 이동노동자들이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 안전교육, 노무·건강 상담 지원사업 등을 전개했다.

시와 쿠팡이츠서비스(유),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계 점검을 넘어, 민·관이 협력해 이동노동자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챙기고 돕는데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

먼저 무상점검에는 지난 3월부터 5월 까지 해당 지역 배달 이력이 있는 1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의 △구동계 △타이어 △배터리 △조향장



치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이 지원됐다. 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에는 △점화플러그 △미션오일 △엔진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 교체도 지원됐다.

또한 시는 '상담의 날'과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자리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다가오는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톨보시를 전달하는 등 체험형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